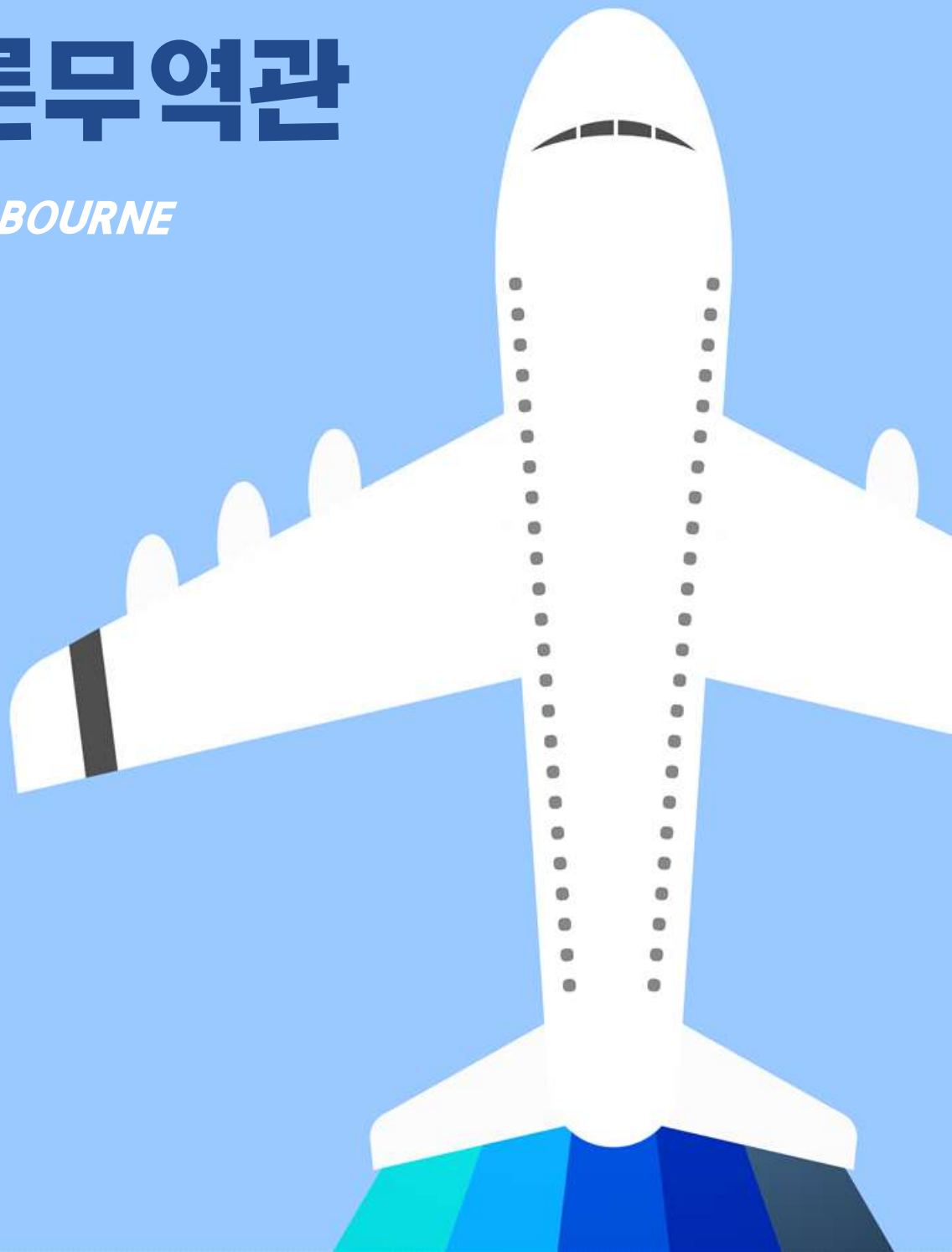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멜버른무역관

KOTRA MELBOURNE



목 차

I. 호주 국가 개황	1
II. 무역관 관할지역 개황	3
III. 체류 참고자료	5
IV. 호주 역사	11
V.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15
VI. 호주 경제동향	19
VII. 멜버른무역관 안내	37

I. 호주 국가 개황

1. 일반사항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오세아니아(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적	769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2,570만명(호주 통계청, 2021년)
민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행정 구역 및 주요 도시	○ 6개 주(State)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 시드니, 뉴캐슬, 울릉공 - 빅토리아(Victoria) : 멜버른, 질롱 - 퀸즐랜드(Queensland) :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 서호주(Western Australia) : 퍼스 - 남호주(South Australia) : 아들레이드 - 타즈매니아(Tasmania) : 호바트 ○ 2개 준주(Territory) -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캔버라 -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 : 다윈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Anthony Albanese 총리 - 2022년 5월 21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당선, 집권당 교체 - 호주는 의원 내각제로 총리 임기 없음

2. 지도 및 국기

○ 지도 (6州(state) 2準州(territory))



○ 국기



II. 무역관 관할지역 개황

1. 빅토리아주(Victoria)

□ 일반 현황

- 면적 : 22만 km²(한반도 면적과 비슷)
- 인구 : 664만명(호주내 2위)
- 주도 : 멜버른(Melbourne)
 - 주수상(Premier) : 다니엘 앤드류(Mr. Daniel Andrews, 노동당)

□ 산업특성

- 호주 바이오, 정보통신, 온라인, 금융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 탑20 의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
 -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료기업 CSL, Cochlear Implant, Bionic Eye 본사 소재
 - 코로나19 대응 위해 멜버른에 수술용 마스크 및 백신 생산 제조시설 투자
- 호주 최대 정보통신 기업이 위치하며 온라인기반 서비스 산업 발달
 -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Telstra 및 호주 주요 온라인기업 Computershare, REA Group, Carsales, Seek이 멜버른을 기반으로 성장
- 호주 4대 은행 중 2개(NAB, ANZ) 소재, 최대 보험사 및 금융사 위치
- 호주 전체 수출시장의 25% 이상 점유
 - 멜버른항은 호주 최대 규모의 수입통관 항구(호주 컨테이너 물동량의 36% 커버)
 - 빅토리아, 타즈매니아, 남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물류 연간 265만 TEU 취급
- 아시아태평양지역 멀티미디어 및 IT산업 거점화 육성 추진
 - e스포츠, 핀테크, ICT 교육 산업의 발달 및 Data-61, NBN Co,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센터가 멜버른에 위치
 - 세계 최고의 게임 전시회 PAX Australia(Penny Arcade) 및 호주 최대의 e스포츠 페스티벌 MEO(Melbourne eSports Open) 개최지

2. 남호주주(South Australia)

□ 일반 현황

- 면적/인구 : 98.3만 km² / 177만명(호주내 5위)
- 주도 : 아들레이드(Adelaide)
 - 주수상(Premier) : 피터 말리나우스카스(Mr. Peter Malinauskas, 노동당)

□ 산업특성

- 농식품, 와인 및 목재 제품이 주요 생산 품목(주 총수출의 47%)
 - 와인 사업이 발달했으며 호주 프리미엄 와인의 약 80% 생산
- 호주 방위산업 지원 활발
 - 방위분야 중소기업·진출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방위산업 역량센터(Centre for Defence Industry Capability) 애들레이드 위치
 - 연방정부는 남호주주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호주달러를 ‘해군 조선 계획(Naval Shipbuilding Plan)’에 투입
- 항공우주산업의 주축지
 - 애들레이드에 국립항공우주국(Australian Space Agency) 설립

2. 타즈매니아주(Tasmania)

□ 일반 현황

- 면적 : 6.7만 km² / 인구 : 54만명(호주내 6위)
- 주도 : 호바트(Hobart)
 - 주수상(Premier) : 제레미 로클리프 (Mr. Jeremy Rockliff, 자유당)

□ 산업특성

- 농수산업, 광업, 관광업 발달
 - 품질 좋은 식료품 생산으로 유명하며, 농작물(감자, 과일), 축산물(소고기, 양고기), 수산물(연어, 굴, 전복) 등의 주요 생산지
 - 약 40%의 국토가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지정, 관광지로 인기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심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약 96%이며, 수력발전으로 대부분의 전력공급 충당
 - 호주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Hydro-Electric이 호바트에 소재

Ⅲ. 체류 참고자료

1. 비자 및 출입국

□ 비자(2022.5월 기준)

- 2022년 2월 21부터 백신 접종(2차)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호주 입국이 허용
 - 2022년 4월 18일부터 호주 입국 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요건 폐지
- 호주입국을 위한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유효한 비자를 소지(ETA 포함)
 - 호주 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서 제시(2차 접종완료 필수)
 -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제출(온라인 또는 앱)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전자비자(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ETA 비자는 반드시 호주 내무성 공식 ETA
온라인 신청 페이지(www.eta.homeaffairs.gov.au) 에서 해야 함

<호주 내무성 ETA비자 온라인 신청서>

자료원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 입국절차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수시로 확인 필요
- 여권, 항공권, 입국카드(Incoming Passenger Card)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음.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 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 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됨. 참고로 호주에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하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
-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은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함.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케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 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 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	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 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 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 제출

자료원 :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

2. 멜버른 지역 기후

○ 방문기간 중 멜버른의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한 멜버른의 날씨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음. 즉, 한국의 봄·여름은 멜버른의 가을·겨울임. 멜버른은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겪을 수 있다’는 말처럼 기온차가 큼. 항구도시인 만큼 풍속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은 편임
- 가을, 겨울에는 바람막이 및 패딩 점퍼가 필수이며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 햇빛 차단용 모자와 선크림을 수시로 바를 것을 권유함. 햇볕이 따가운 여름에는 탈수현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 필요

<멜버른 월별 평균 기온>

(단위 : °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	20.2	18.3	15.3	12.8	10.4	9.9	10.8	12.4	14.3	16.8	18.2
최고	26.0	25.8	23.9	20.3	16.7	14.1	13.5	15.0	17.3	19.7	22.0	24.2
최저	14.3	14.6	13.2	10.8	8.7	6.9	6.0	6.7	8.0	9.6	11.2	13.0

3.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면세 한도 성인(18세 이상) AU\$900, 아동 AU\$ 450 초과 물품, AU\$10,000(US\$7,000) 이상 현금 휴대 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신고서 기재 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중요) 특히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되며,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통관 중 입국 신고서에 미신고 품목 적발 시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통관 수속이 지연됨
-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됨
- 담배 25개피 또는 시가(cigars) 25그램까지 면세 허용

4. 환율

- AU\$ 1 = 900.86원 (2022.6.3. 기준)
- 호주 내 미화는 통용되지 않아 호주화 환전은 필수이며 한국 내 환전이 유리
- 호주 내 환전은 소액의 경우 은행과 환전소에 큰 차이가 없음

5. 팁, 카드결제 관련

-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불 시 평균 식대의 10% 이하가 일반적임
- 카드결제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아멕스나 다이너스를 거부하는 곳도 일부 있음
- 호텔, 레스토랑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카드사에 따라 상이)를 지불하는 곳이 많으며 일부 식당에서 현금 결제를 요청하기도 함

6. 전화사용

- 공중전화 : 기본 50센트(시내)
- 한국으로의 전화
 - 다이얼: 0011-82-지역번호-전화번호/수신자부담전화 : 1800-88-1820
- 긴급 전화 : 000(화재, 경찰신고, 구급차 등)

7. 시내 교통

- 대중교통수단 : 트램(Tram)
 - 구간별 요금적용 : 기본요금 AU\$4.60(2시간 내 무제한 이용 가능), 하루 24시간 무제한 이용가능(Daily Fare Cap) 주중 AU\$9.20, 주말 AU\$6.70
 - 교통카드 : 편의점 또는 뉴스 에이전시에서 Myki 카드구입(AU\$6.00) 후 충전하여 사용
 - 노선도 : 시내 Tram 정류소(호텔 내 안내 리플렛 등)
- 택시, 우버 : 전화나 앱으로 예약
 - 택시요금 : (낮) 기본요금 AU\$4.20, AU\$1.622/Km 부과(한국 대비 3배 수준)
 - 택시전화 : 13-2227(13Cabs), 13-1008(Silver Top), 13-2211(Arrow)

8. 기타 특기사항

- 인터넷 사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호텔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나 별도 사용료(보통 A\$20~30/1일)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 전압은 240볼트, 50Hertz임.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시, 삼각 플러그(일명 돼지코)가 필요함
- 호주에서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금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차량은 좌측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미이행시 A\$330(약 30만원)의 벌금을 징수함

9. 멜버른 시내 주요 식당

구분	식당명	전화	주소
한식	Dooboo (북창동 순두부)	0406 712 475	261 Swanston St, Melbourne
한식	Guhng (궁)	03 9041 2192	19 McKillop St, Melbourne
한식	Bornga (백종원 본가)	03 9650 8878	1/178 Little Bourke St, Melbourne
한식	Dae Jang Geum (대장금)	03 7013 8955	235 Little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양식	Rare Steakhouse	02 9663 3373	6/61 Little Collins St, Melbourne
양식	Meat&Wine Co.	03 9696 5333	Freshwater Place, 3 Queensbridge St, Southbank
양식	Gradi Crown	03 9696 9888	Crown Towers Melbourne, 8 Whiteman St, Southbank
베트남 식	Hochi Mama	03 9078 2285	35 Little Bourke St, Melbourne
퓨전식	Lucy Liu Kitchen and Bar	03 9639 5777	23 Oliver Lane, Melbourne
카페	Higher Ground	03 8899 6219	650 Little Bourke St, Melbourne

10. 공휴일(2022년 빅토리아주 기준)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같으나 일부는 주마다 상이함. 멜버른이 소재한 빅토리아주의 2022년도 공휴일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명	2022년
신년 (New Year's Day)	1월 3일 월요일
건국 기념일 (Australia Day)	1월 26일 수요일
노동절 (Labour Day)	3월 14일 월요일
성 금요일 (Good Friday)	4월 15일 금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aturday)	4월 16일 토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unday)	4월 17일 일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Monday)	4월 18일 월요일
국군의 날 (Anzac Day)	4월 25일 월요일
여왕 탄생일 (Queen's Birthday)	6월 13일 월요일
호주풋볼리그 최종 결승전 금요일 (Friday before the AFL Grand Final)	9월 23일 금요일
멜버른컵 데이 (Melbourne Cup)	11월 1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일요일
**박싱 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월요일
대체 휴일 (Additional Day) **박싱 데이 대체 휴일	12월 27일 화요일

자료원: 호주 빅토리아주 주정부

IV. 호주 역사

1. 호주의 역사

○ (~1700년대) 유럽인 출현 이전 원주민 시대

- 최초의 호주 원주민(Aborigine)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대륙과 가깝게 근접하였던 4~7만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왔으며 고대 인류와 DNA가 가장 비슷함. 호주 원주민들은 수백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로 추정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으며 이에 1788년부터 백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

○ (1800 ~ 1900년) 영국 영토로 선언 이후 이민 시대 시작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 인에 의해 호주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호주 동부 해안인 보타니 베이에 상륙, 영국 영토로 선언함.
- 1788년 영국 아서 필립 함장은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인)의 1차 이주민을 호주로 인솔하여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1823년부터는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되었고 1840년부터 죄인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
-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 중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 1857년도에는 그 숫자가 23,623명에 달해, 중국인들이 유럽인을 하인계급으로 타락시킨다는 공포가 팽배해지고 급기야 백인들이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됨

○ (1901 ~ 1999년) 연방국가로 독립 후 다양한 출신의 이민국가로 변화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가 연합해 영연방을 설립함. 1913년 캔버라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 후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42년 외교권과 국방권을 얻어 자치령에서 독립국으로 발전하였고 제 1, 2차 세계 대전에 뉴질랜드와 참전하였으며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
- 1962년에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 1971년 OECD에 가입함. 1973년에 백호주의를 폐지, 1975년 인종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민이 자유로워져 인구가 급증

○ (2000 ~ 2021년) 아·태지역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

- 2000년 역대 두 번째로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2008년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총리 케빈 러드가 호주 원주민, 도둑맞은 세대에게 대국민 사과함
- 2010년 6월 24일, 제 27대 총리로 줄리아 길라드가 여성 최초로 선출되고 2012년 OECD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됨.
- 2018년 8월 24일 호주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자유국민연합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30대 총리로 취임
- 2019년 말 역사상 최악의 산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분기 경기불황 선언 하지만 2020년 3월 20일 국경을 봉쇄하고 내수 경기회복에 주력한 결과 2020년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호주의 역사적 순간들>

		
초기 원주민 거주 시대	1770년 제임스 쿡, 영국영토 선언	1850년대 골드러시
		
1901년 1월 1일 독립	1956년 멜버른 올림픽 개최	1959년 오페라하우스 완공
		
2008년 호주 총리, 대국민 사과	최초의 여성 총리, 줄리아 길라드	2019년 말, 산불

2. 호주의 정치 체계 및 현황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됨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 호주 정부 시스템은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 지역 의회 순이며 각각의 수장은 연방 총리(Prime Minister), 주 총리(Premier), 지역 자치장(Mayor)임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이 가능

○ 국내정치 현황

- 2022년 5월 21일 개최된 제 47회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151석 중 77석의 과반의석을 확보(2022년 6월 2일 확인 기준)하며 前여당이자 유력 경쟁당인 자유연립당을 제치고 8년 9개월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함. 현 호주 총리이자 노동당 당수는 앤서니 알바니즈로 2019년 노동당 당수 빌쇼튼의 사임과 함께 당 대표로 당선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선거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따라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호주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3. 호주의 사회 현황

○ 사회 구성원 특징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인구는 약 2,575만 명으로 연령에 따른 인구 구성은 0~14세가 전체 인구의 19%, 15~64세(노동인구)가 64.9%, 65세 이상이 16.1%를 차지함
- 2006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비중이 2050년에는 약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아시아계 호주인은 호주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중국, 인도, 필리핀 커뮤니티가 이민자그룹에서 상위를 점유함. 호주의 중국계 이민자는 120만명, 인도계 이민자는 62만 명, 필리핀계 이민자는 30만명, 한국계 이민자는 12만명, 일본계 이민자는 7만 명임
- 중국계 호주인은 시드니에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큰 인종 계통(Ancestry) 구성원으로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호주 소비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근로환경

- 호주는 전 세계 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2021년 7월 1일 부 회계연도 2021/2022년 호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1.75%) 보다 높은 2.5% 인상되어 20.33 호주달러임
-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이며 이외에 추가근무시간을 갖기도 하나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됨.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 4주의 연차 휴가 및 연 10일 정도의 병가를 갖으며 1년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피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복지환경

- 호주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정부기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되며 실업급여, 구직수당, 그 외 복지수당 지급을 관리함

V. 빅토리아주 관광명소

□ 그레이트 오션 로드(Great Ocean Road) : 왕복 총 10시간



멜버른 남서쪽의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토기(Torquay)에서 론(Lorne), 아폴로베이(Apollo Bay), 포트캠벨(Port Campbell) 국립공원, 와남불(Warrnambool)에 이르는 300km의 해안길로 해식작용으로 형성된 온갖 형상의 바위섬과 절벽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며 타임지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함

1919년 공사가 시작되어 앵글시(Anglessea)에서 아폴로베이 구간까지 1932년에 완공된 곳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호주 정부는 퇴역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안선이 아름다운 이곳에 삽과 곡괭이만으로 공사를 하여 세계적 명소를 탄생시켰음



포트캠벨 국립공원의 12사도(Twelve Apostles)는 석회암으로 형성된 해안이 거센 파도에 갇혀 아치형 통로가 생기고 다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12개의 작은 바위섬이 예수의 열두제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이곳은 지금도 해식작용에 의해 매년 13cm씩 깎여나가고 있음

포트캠벨은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1800년대 영국과 멜번을 오가던 160여척의 선박들이 근처에서 침몰했음. 특히 로치아드 조지(Loch Ard Gorge)는 영국의 로치아드(Loch Ard)호의 이름을 딴 곳으로 1878년 3개월의 항해 끝에 멜번에 도착, 정박을 눈앞에 두고 Muttonbird Island의 절벽에 부딪혀 난파되어 54명 중 19세 승선자 Tom과 18세 승객 Eva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곳임

□ 필립 아일랜드(Phillip Island) : 왕복 총 5시간



필립 아일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27~33cm 크기의 난쟁이 펭귄의 서식지로, 해가 진 이후 저녁나절에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정겨운 펭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펭귄의 귀가 시간은 계절마다 상이하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함

□ 소버린힐(Sovereign Hill) : 왕복 총 4시간



1851-1861년의 골드러시 시대를 재현해 놓은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으로, 실제 지하 금광을 따라 탐험할 수 있음

중국인 마을과 채굴광, 광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리에 걸린 간판이며 소품이 모두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며 일부 가게(Bakery 등)는 현재 상업을 하고 있음

□ 단데농마운틴 퍼핑빌리 (Dandenong Mountain Puffing Billy)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데농 마운틴에는 산림지대를 통과하는 100년 된 증기기관차 퍼핑 빌리(Puffing Billy)가 있음

출발역인 벨그레이브 역을 출발하여 종착역인 켄부르크 역까지 약 1시간 20분을 달리며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원시림을 달리는 기분이 색다름

❑ 플린더스 스테이션(Flinders Station)



호주의 최초의 기차역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모두 이곳을 종착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고풍스러운 인도풍의 건물로 멜버른 방문 시 꼭 한번은 접하는 곳이며, 2004년 국내에서 방영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페 CF 촬영지로서도 알려져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음
역 맞은편 연방광장(Federation Square)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많고 약속 장소로도 유명함

❑ 로얄 보태니컬 가든(Royal Botanic Garden)



19세기 중반 조성된 화원으로 전체면적이 약 36ha(4만평)인 호주 최대 규모를 자랑함
원래는 시내외곽에 위치한 습지대였으나, 지금은 멜번 중심에 위치한 도심 공원으로 유명하며, 영국식 정원 설계에 따라 건설되었음
빅토리아주 총독 관저(Government House)가 공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쟁기념관(Shrine of Remembrance)이 공원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 퀸 빅토리아 마켓(Queen Victoria Market)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1878년부터 오픈하였음
시장 이전에는 공동묘지였으나, 현재 멜버른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호주 서민들의 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곳임

□ 유레카 타워(Eureka Tower)



유레카 타워는 높이 297.3m로 남반구 가장 높은 전망대이자,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용 건축임 88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멜버른 정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꼭대기 층의 Edge에서는 투명한 유리 바닥 밑으로 지면을 볼 수 있어 스릴이 넘침

1850년대 골드러쉬 시절의 멜버른의 명성을 말해 주듯 건물 꼭대기는 24K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유레카'라는 이름은 골드러쉬 시절 영국의 혹독한 세금정책에 반발하여 광부들이 일으킨 호주의 유혈 충돌인 "Eureka Revolution"에서 따옴

□ 피츠로이 정원(Fitzroy Gardens)



멜버른 시내 서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빅토리아주가 뉴사우스웨일즈주(NSW)로부터 분리될 당시 NSW주 총독인 찰스 피츠로이(Charles Fitzroy)경의 이름을 따랐으며 하늘에서 보면 영국의 유니온잭의 모양을 따라 공원 내 산책로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음



1993년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쿡(James Cook) 선장의 영국 생가를 분해, 모든 벽돌을 그대로 운반해 와서 이 정원에 복원하였음. 이곳에서 18세기 영국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이 보관되어 있음

□ 세인트 패트릭 성당(St. Patrick's Cathedral)



1858년 착공해 약 70년에 걸쳐 1940년 완공된 세인트패트릭 성당은 호주의 가장 훌륭한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며, 당시의 예술적 기교와 솜씨를 볼 수 있는 곳

호주에서 가장 높은 성당(105m)이며, 청회색 사암(블루스톤)을 사용하여 건축되어 독특한 색의 외관을 자랑함

VI. 호주 경제동향

1. 호주의 경제

(1)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	2.8	1.9	-2.4	4.7
명목 GDP (십억\$)	1,421.3	1,391.5	1,359.3	1,633.1
1인당 명목 GDP (\$)	56,465.2	54,464.1	52,824.8	60,057.6
물가상승률 (%)	1.8	1.8	0.9	3.4
실업률 (%)	5.3	5.1	6.5	5.1
외환 보유고 (백만\$)	53,874	58,741	43,007	58,640
정부부채 (% of GDP)	41.7	47.5	63.1	72.4
이자율 (%)	1.5	0.75	0.1	0.35
총 수출액 (백만\$)	257,097.5	270,982.1	250,610.8	344,724.4
총 수입액 (백만\$)	227,011.6	213,750.4	203,160.3	247,706.0
무역수지 (백만\$)	30,086.0	57,231.7	47,450.5	97,018.3
해외직접투자 (십억A\$)	2,565.8	2,966.5	3,051.4	3,326.7
외국인직접투자 (십억A\$)	3,603.5	3,923.7	4,043.8	4,136.1

주: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전년대비 증감률), 투자통계는 누계기준

자료원: IMF, 호주 통계청, 호주 준비은행, Global Trade Atlas, UNCTAD Stat

(2) 주요 경제특징

○ 지역에 따른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전체 인구의 78%, GDP의 73.2%를 점유함.

<호주 주요 주별 GDP 비중>

주(State)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기 타
GDP 비중 (인구)	31.5% (819만명)	23.3% (664만명)	18.4% (524만명)	26.8% (56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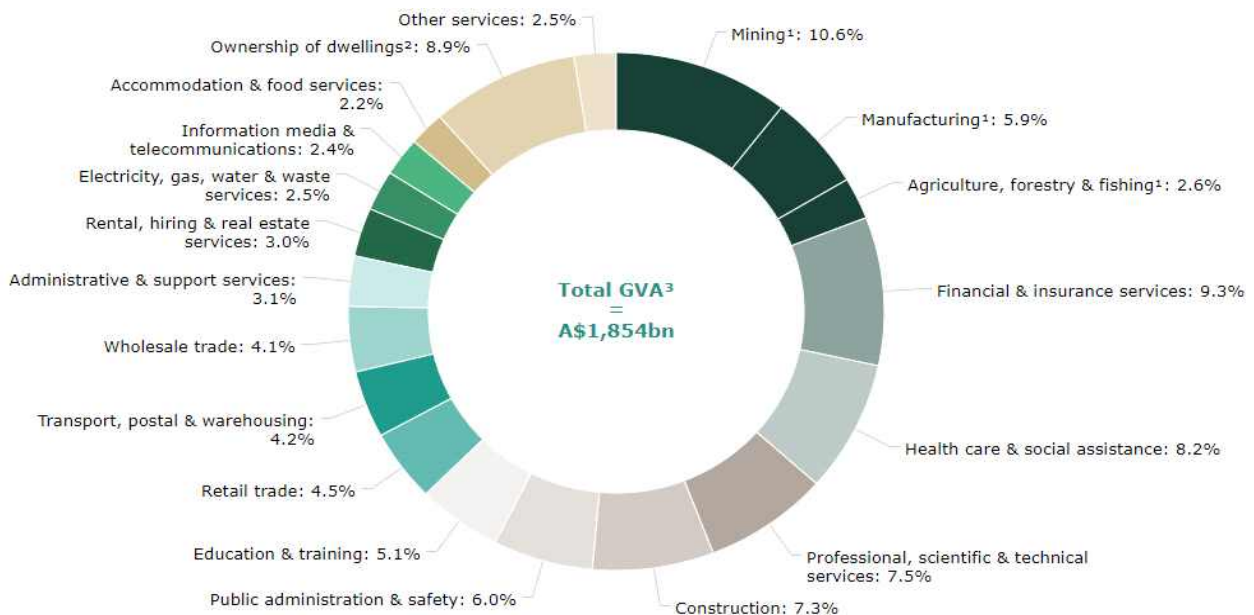
주: 주별 GDP 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인구 2021년 9월 기준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2)

○ 산업별 GDP 비중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금융, 의료, 교육, 관광)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광업, 에너지, 농·축산업이 발달함.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기여 비중>



주: 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2), 호주 무역투자진흥기관(Austrade 2022)

- (농·수산·임업) 총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며 전체 GDP의 2.6%를 점유함.
- 농·수산·임업 총수출의 86%는 아시아 8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출
- 2020-21년 기준 농축산 총 수출액인 530억 호주달러 중 70%는 밀, 와인, 양모, 양고기, 과일, 소고기 등 15개 품목이며 소고기가 21%을 차지
-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호주는 영국, 인도 등 농축산업 교역 파트너 다변화를 위해 노력

👉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 밀 : 123억 호주달러, 3,442만톤 생산	. 소고기 : 157억 호주달러, 189만톤 생산
. 보리 : 38억 호주달러, 1,329만톤 생산	. 양고기 : 37억 호주달러 66만톤 생산
. 카놀라 : 58억 호주달러, 573만톤 생산	. 우유 : 51억 호주달러, 88억 리터 생산

주: 2021-22년 예측치(AU달러)

자료원: 호주농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2022)

- (광업) 호주는 석탄, 철광석, 원유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70% 가량이 자원 수출임
- 2021년 기준, 호주 전체 수출액 약 3,447억 달러 중 자원·에너지 수출이 전체의 71.8% 비중을 차지함
- 코로나19 회복세를 타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철광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신광물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 호주의 핵심광물 자원

-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29.0%), 생산량 세계 1위(38.0%)
-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0%), 생산량 세계 4위(7.0%)
- . 매장량 세계 1위 : 금(20%), 금홍석(63%), 납(41%), 우라늄(31%), 아연(26%) 등
-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동(매장량 2위), 리튬(매장량 2위) 등

주: 2020년 12월 집계 기준

자료원: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2021)

- **(제조업)** 2020-21년 기준, GDP 기여 비중 5.9%이나 첨단 기술 적용으로 국가 주요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부상
- 호주는 높은 임금과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생산비용 및 물류비용이 높아 전통적인 제조업은 쇠퇴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환경 개선으로 소량 생산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함
- 특히,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드러난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수급차질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선진화를 강화하고자 2019년 4차 산업 성장 계획 Industry 4.0에 이어 2020년 제조업 현대화 전략(Modern Manufacturing Strategy)을 발표하고 15억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호주 첨단 제조업은 2030년까지 호주 경제에 3,000억 호주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호주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점 분야

- | | |
|-----------------|----------------|
| .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 .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
| . 식음료 | . 방위 |
| . 의료바이오 | . 우주항공 |

자료원: 호주 연방정부(2021)

○ **주요 유망산업**

-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는 2022년 선거 공약을 통해 2030년까지 호주의 탄소 중립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힘. 제로 탄소 배출 목표는 이전 정권과 동일하게 2050년을 목표로 함. 이에 신재생,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 사용 증진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며, 특히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전기차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 제공 등 구체적 지원 정책을 개진할 예정임
- 그 외 인프라, 의료바이오, 방산, 항공·우주 등의 분야가 미래 성장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3) 호주의 경제 동향

- 2022년 워드 코로나 정책 및 국내 경기 활성화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 (GDP) 2020년 3분기 V자형 성장세로 전환 후, 2021년 상반기 3%대, 하반기 4%대의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상반기 3.3%, 하반기 4.3%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GDP성장률: 4.2%(’21. 하반기) → 3.25%(’22. 상반기) → 4.25%(’22. 하반기) → 3%(’23. 상반기) → 2%(’23. 하반기)
 - (금리) 호주 준비은행은 2022년 5월 가파른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존 0.1%의 금리를 0.35%로 0.25 포인트 인상하였으며, 올해 말 0.6% 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 금리: 0.75%(’19.10) → 0.5%(’20.3.3) → 0.25%(’20.3.19) → 0.10%(’20.11.2) → 0.35%(’22.5.3)
 - (실업률) 2020년 7월 7.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12월 4.2%까지 감소함. 2022년 5월 기준 4%선을 유지중임
 - * 실업률: 7.4%(’20.6) → 6.6%(’20.12) → 4.9%(’21.6) → 4.2%(’21.12) → 4.0%(’22.5)
 - (물가상승률) 2022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으며 수송관련 서비스가 13.7%로 가장 큰 상승을 보임. 반면, 의류 및 신발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함. 2022년 5월 기준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5.1%임
 - (소비동향) 2022년 3월 기준 호주의 가계 지출은 전월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1년 동안 6.6%의 증가율을 보임. 레크레이션 및 문화생활 부문이 연 17.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의류 및 신발이 15.2%, 운송이 12.5%로 뒤를 이음. 2021년 3분기 시드니와 멜버른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재 확산되어 오프라인 소비는 다시 온라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러한 소비 성향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22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환율) 높은 인플레이션, 11년 만의 금리 인상 등으로 2022년 5월 중순 1호주달러는 0.69 미달러까지 하락. 한편, 국제 자원 수요의 꾸준한 증가 및 원자재가 상승, 현지 정권 교체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6월 3일 기준 0.73 미달러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 글로벌 투자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 및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호주의 올 하반기 환율을 0.86 미달러까지 전망함

2. 호주의 무역

(1) 주요 순위

<2021 호주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1	중국	67,914	-
2	미국	25,502	-
3	일본	15,176	-
4	태국	11,060	-
5	독일	10,695	-
6	말레이시아	10,041	-
7	싱가포르	9,336	1 ↑
8	한국	9,073	1 ↓
9	인도	5,974	5 ↑
10	이탈리아	5,534	1 ↑
합계		248,893	-

<2021 호주 10대 수출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1	중국	115,535	-
2	일본	29,776	-
3	한국	21,924	1 ↑
4	인도	12,821	2 ↓
5	미국	12,164	2 ↓
6	대만	9,171	2 ↑
7	싱가포르	8,825	2 ↑
8	뉴질랜드	8,532	1 ↓
9	홍콩	7,118	1 ↑
10	베트남	7,016	1 ↑
합계		345,599	-

자료원: ITC Trade Map

<2021 호주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기계 및 원자로 부품 등	36,833
2	차량 및 부품	33,241
3	전자기기 및 부품	28,194
4	광물성 연료	25,824
5	의료용품	10,758
6	광학, 사진, 수술기기 등	9,264
7	귀금속	7,638
8	플라스틱	7,300
9	철강제품	5,658
10	가구, 침구, 매트리스	5,571
합계		248,893

<2021 호주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광물성 연료	131,822
2	석유와 역청유	91,747
3	귀금속	20,627
4	육류	11,605
5	곡물	10,046
6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6,412
7	기계류	4,759
8	알루미늄	4,682
9	구리	3,858
10	전자기기	3,656
합계		345,599

자료원: ITC Trade Map

(2)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는 2016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회복 추세
 - 2021년 기준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5,924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증가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호주 4위 교역국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및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했으나 2021년에 5위 교역 대상국과의 교역액 모두 상승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억US달러)

순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4,525	4,841	4,847	4,537	5,924
1	중국	1,255	1,433	1,581	1,587	2,021
2	일본	499	582	544	422	616
3	미국	318	330	353	368	377
4	한국	317	276	259	223	363
5	싱가포르	113	158	154	132	210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호주의 수출은 2020년 소폭 하락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상승세
 - 2020년 호주의 총 수출액은 2,506억 달러였으며 경제가 회복되면서 2021년 전년대비 약 37% 상승한 3,447억 달러임.
- 호주의 수입은 2019년과 2020년 2년간 소폭 하락했으나 2021년도부터 증가
 - 호주의 총 수입액은 2020년 2,032억 달러이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2,477억 달러임.
- 호주의 무역수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하락했으나 2021년 큰 폭 상승
 - 2020년 호주는 전년대비 98억 달러가 감소한 474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70억 달러를 기록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US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2,311	2,571	2,710	2,506	3,447
수입	2,214	2,270	2,138	2,032	2,477
무역수지	98	301	572	474	97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3) 수출

○ 주요 수출 품목

- 호주 최대 수출품인 광물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수출 증가를 보였으며 글로벌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316억 달러를 기록
- 기존 주요 수출품이었던 곡류는 2018년부터 수출이 감소했으나 2020년도부터 다시 증가, 2021년에는 160% 이상 수출액이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물류 대란으로 광물성 연료,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육류 등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주요 10대 수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품 목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	797	31.89	937	17.66	1,316	40.10
2	광물성 연료	878	-3.58	612	-30.26	953	55.57
3	귀금속류	180	11.77	196	8.71	206	5.35
4	육류	113	12.83	100	-11.58	110	9.61
5	곡류	34	-29.52	38	10.35	98	160.30
6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63	-23.26	51	-18.08	63	23.09
7	핵 반응기계	48	0.02	43	-9.60	46	6.93
8	알루미늄	32	-15.78	29	-9.37	42	44.97
9	구리	31	10.71	27	-12.90	38	39.40
10	전자기계	35	9.37	31	-11.42	35	15.89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함
- 2020년에는 미국이 호주의 수출 대상국 4위였으나 2021년 인도가 대체,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수출 증가 추세
- 2020년 대 한국 수출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해 269억 달러를 수출함

<주요 수출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1,030	38.03	1,001	39.97	1,338	38.82
2	일본	394	14.56	300	11.97	464	13.46
3	한국	175	6.49	160	6.41	269	7.79
4	인도	102	3.79	131	5.24	145	4.22
5	미국	105	3.88	103	4.11	121	3.52
6	대만	83	3.05	87	3.46	120	3.50
7	싱가포르	71	2.61	70	2.79	116	3.36
8	뉴질랜드	98	3.61	69	2.75	84	2.44
9	인도네시아	89	3.28	68	2.70	75	2.18
10	베트남	52	1.93	51	2.03	71	2.06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4) 수입

○ 주요 수입 품목

- 2021년 호주 수입 품목 중 광물성 연료의 수입이 전년대비 62.53%의 증가율로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자동차 수입은 38.15% 증가
- 호주 귀금속류 수입은 2020년에 상승한 것에 반해 2021년에는 12.22% 하락

-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철 및 철강제품, 기계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약품, 광학 및 의료기구, 가구, 침구 등 생활용품 수입이 지속 상승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핵반응 기계	306	-3.94	308	0.74	367	19.08
2	자동차	267	-11.11	241	-9.87	332	38.15
3	전자기계	244	-4.53	242	-1.15	271	12.50
4	광물성 연료	270	-10.79	159	-41.03	258	62.53
5	의약품	84	2.44	88	4.83	107	22.25
6	광학 및 의료기구	81	-2.43	81	-0.44	92	14.43
7	귀금속류	66	-0.13	87	31.95	76	-12.22
8	플라스틱류	58	-8.50	62	6.41	73	17.12
9	철 및 철강제품	45	-10.80	45	-0.02	56	25.30
10	가구, 침구 및 램프 등	46	-5.18	48	4.34	55	17.00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태국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51%를 차지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2021년 기준 호주 전체 수입액의 27%이상을 점유하며, 2위 수입국인 미국보다 수입 규모가 2.5배 이상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은 2017년 호주의 4위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21년에는 다시 상승해 94억 달러 기록

<주요 수입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551	25.75	586	28.85	683	27.59
2	미국	250	11.70	237	11.68	256	10.33
3	일본	149	6.99	122	6.01	152	6.14
4	태국	103	4.83	99	4.86	113	4.57
5	독일	102	4.77	94	4.64	107	4.34
6	말레이시아	76	3.57	67	3.29	100	4.05
7	싱가포르	72	3.36	51	2.50	95	3.84
8	한국	84	3.92	63	3.08	94	3.81
9	인도	32	-21.08	38	18.75	60	2.45
10	이탈리아	49	-5.83	47	-4.08	57	2.29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5)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21년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약 9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6% 증가, 수입은 329억 달러로 76%증가한 수치로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적자

<對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US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출	9,610(-51.6)	7,891(-17.9)	6,189(-21.6)	9,750(57.6)
수입	20,719(8.1)	20,608(-0.5)	18,707(-9.2)	32,917(76.0)
무역수지	-11,109	-12,717	-12,518	-23,16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2022년 1~4월까지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6.5% 증가했으며 수입은 14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9.2% 증가한 수치로 무역수지는 91억 달러 적자

<2022년 1~4월 기준 對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US달러, %)

구분	2022년1월	2022년2월	2022년3월	2022년4월
수출	1,061(70.8)	1,090(74.4)	1,672(130.6)	1,560(103.3)
수입	3,913(114.2)	3,295(48.6)	4,394(63.2)	2,951(22.7)
무역수지	-2,851	-2,205	-2,721	-1,39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21년에는 對호주 주요 품목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유, 승용차, 휘발유, 제트유 및 등유 순으로 높음
 - 호주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의약품, 경유, 휘발유, 아연도강판, 철도차량의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
 - 2021년 상위 10개 품목 외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한 7,575만 달러 수출 기록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경유	1,065	-40	840	-21.1	2,334	177.9
2	승용차	2,008	-5.2	1,668	-16.9	2,245	34.6
3	휘발유	590	-27.7	405	-23.5	810	104.9
4	제트유 및 등유	1,127	-27.5	173	-84.6	233	34.7
5	철도차량	26	0.0	111	318.3	215	93.6
6	축전지	142	2.9	149	5.3	139	10.3
7	수산화나트륨	73	-43.2	70	-4.2	134	91.4
8	의약품	9	-45.1	12	36.2	126	878.3
9	건설중장비	108	-33.4	113	4.0	98	48.2
10	아연도강판	46	47.9	45	-3.2	98	117.5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 2021년 경제 재가동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이 재상승

- 주요 수입 품목 2,3위인 유연탄, 천연가스는 2020년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증가세
- 철광, 동광, 아연광 등 원자재 수입이 2021년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 금은 2020년부터 수입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수입액이 493.7% 상승하며 11억3,900만 달러를 기록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철광	4,705	38.2	4,977	5.8	8,517	71.1
2	유연탄	5,331	-1.7	3,621	-32.1	7,290	101.4
3	천연가스	3,739	-12	3,025	-19.1	5,762	90.5
4	원유	498	-38.6	545	9.5	1,586	191.1
5	쇠고기	1,266	1.6	1,276	0.8	1,384	21.4
6	동광	510	7.4	910	78.4	1,328	45.9
7	금	85	-37.8	191	125.0	1,139	493.7
8	기타금속광물	539	-4.4	635	17.9	702	10.7
9	알루미늄괴	647	-11.2	764	18.1	663	-8.0
10	아연광	307	-50.8	334	8.7	596	78.5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3. 호주의 투자

(1) 투자유치 동향

○ 지난 3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21년 투자 유치액은 누계 기준 4조 1,361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923억 호주달러 증가함(호주 통계청은 2001년 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투자액 공시)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누계 기준 1조53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전체 25.5% 비중을 차지, 영국, 벨기에, 일본이 뒤따름.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2021년 누계 298억 호주달러로 17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투자의 0.7%의 비중을 차지

<2019-2021년 국가별 호주 투자현황(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난 5년간 증가율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미국	1,014.3	927.3	1,053.0	25.5	3.1
2	영국	723.9	769.8	718.6	17.4	8.5
3	벨기에	348	408.6	393.5	9.5	8.6
4	일본	244.5	265.1	258.7	6.3	3.6
5	홍콩	144.3	141.1	126.9	3.1	5.8
6	싱가포르	98.9	116.0	121.4	2.9	7.0
7	룩셈부르크	87.5	107.0	92.5	2.2	6.0
8	중국	80.6	81.2	91.8	2.2	3.5
9	네덜란드	88.9	84.2	87.4	2.1	2.3
10	캐나다	60.5	66.3	76.5	1.8	13.0
17	한국	31.3	31.1	29.8	0.7	4.0
	합계	3,923.7	4,043.8	4,136.1	100.0	5.4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2001년-2021년 누계 투자액

자료원: 호주 통계청, 외교통상자원부(2022.5)

○ 호주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이며 지난 5년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공학, 기술업 등임

- 2021년 호주 광업에의 투자금액은 누계 3,606억 호주달러로 전체의 34%를 차지함. 이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이나 지난 5년간 1.2% 증가
- 2021년부터 제조업에의 투자 정보가 재공개 되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는 2020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 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임

<2019-2021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난 5년간 증감률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광업	377.3	361.0	360.6	34.0	1.2
2	부동산업	115.5	121.1	136.9	12.9	11.7
3	금융 및 보험업	110.3	115.3	122.8	11.6	12.1
4	제조업	128.2	124.8	116.6	11.0	5.4
5	유통 및 도소매업	59.2	59.8	60.8	5.7	2.3
6	정보통신	31	31.9	34.1	3.2	6.8
7	수송 및 창고업	25.8	25.6	25.4	2.4	1.1
8	전기, 가스, 수도	22.7	24.2	24.4	2.3	7.9
9	건설업	21.4	18.7	17.6	1.7	-3.3
10	전문, 공학, 기술업	10.3	12.1	12.7	1.2	20.1
11	기타 및 미분류	144.2	137.4	149.7	14.1	4.5
	합계	1,046.0	1,031.8	1,061.5	100.0	4.7

주: 2001년-2021년 누계 투자액

자료원: 호주 통계청(2022.5.)

(2) 한-호 투자 동향

□ 한국의 對호주 투자

○ 2021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127건, 11억 6,500만 달러 기록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년과 신고건수는 유사하나 투자금액이 77% 상승함
- 투자금액 기준, 금융 및 보험업 4억5,900만 달러, 광업 4억1,700만 달러, 부동산업 1억 6,200만 달러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7%, 173%, 95% 큰 폭으로 증가
- 제조업은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임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21)는 신고 기준으로 2,403건, 243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61억 달러, 부동산업 30억 달러, 금융 및 보험업 18억 달러, 제조업 12억 달러 순임

<한국의 對호주 투자 추이>

(단위: 백만US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	115	39	767	1,171
2011	93	31	4,162	1,382
2012	84	27	4,408	2,237
2013	84	24	1,716	2,793
2014	72	15	844	1,673
2015	77	13	679	899
2016	118	38	1,595	1,306
2017	93	23	533	698
2018	144	29	303	473
2019	119	32	880	785
2020	122	28	984	657
2021	127	27	2,275	1,165
누계(1980~2021)	2,403	835	24,307	17,266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호주의 對한국 투자

○ 2021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신고기준 총 22건으로 12억5,200만 달러

- 2020년 호주의 직접 투자는 미국(28.4%), 영국(20.2%), 뉴질랜드(4.1%) 등에 52%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임
- 2020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 비중은 대분류 기준 제조업 73.2%, 서비스업 26.7%이며, 세부 분류 기준 전기·전자(48%), 화공업(25.1%), 임대업(10.8%), 유통업(10.5%) 순임. 예년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금융보험업(3.3%)과 의약업(0.1%)의 투자는 주춤함.
- 호주의 대한투자 누계(1962-2021)는 신고 기준 688건, 48억9,900만 달러를 기록함.

<호주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천US달러,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 건수	24	31	45	26	33	27	15	22
신고 금액	139,833	85,193	79,157	142,330	2,007,357	107,573	6,322	125,242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對호주 진출기업

○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66개 사 진출(2022년 6월 기준)

연번	진출분야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지역
1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SW, VIC
2		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QLD, WA
3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NSW
4		한국광해광업공단	KORES Australia	NSW
5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ity Power Corp. Australia	NSW
6	건설	GS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7		YG-1호주법인	YG-1	VIC
8		대구텍호주법인	TaeguTec Australia Pty Ltd	VIC
9		삼성물산(건설)	Samsung C&T Corp.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10		일진호주	Iljin Australia Pty Ltd	VIC
11		포스코건설	POSCO E&C Australia Pty Ltd	QLD
12	자원개발	SK네트웍스자원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NSW
13		썬메탈코퍼레이션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QLD
14		포스코	POSCO Australia	NSW
15		한국중부발전	KOMIPOA Australia	NSW
16		한화마이닝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WA
17		현대제철	Hyundai Steel Company	QLD
18	에너지	LG화학	LG Chem Australia	VIC
19		한화큐셀	Hanwha Q CELLS Australia	NSW
20		SK에너지솔루션	SK E&S Australia Pty Ltd	WA
21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Australia	NSW
22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NSW
23		쌍용자동차	SsangYong Australia	VIC
24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Tyre Australia	NSW, VIC
25		넥센타이어	Nexen Tire Sydney	VIC
26		한국타이어	Hankook Tyre Australia	NSW
27	자동차 부품	모트렉스	MOTREX	NSW
28		현대모비스	Mobis Parts Australia	NSW
29	전자	LG전자	LG Electronics Australia	NSW
30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NSW, VIC
31	전선	LS전선	LS Cable & System	NSW

32		대한전선	Taihan Electric Australia	NSW
33	종합상사	GS글로벌	GS Global Australia	NSW
34		LG상사	Bowen Investment (Australia)	NSW
35		롯데상사	LOTTE International Oceania	QLD
36		삼성물산상사	Samsung C&T Cooperation	NSW
37		포스코인터네셔널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NSW
38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NSW
39	식품	농심	Nongshim Australia	NSW
40		CJ 뉴트라콘	CJ Nutracon Pty. Ltd	QLD
41		매일유업	Mail Australia Pty Ltd	VIC
42	의료기기	바텍글로벌	Vatech Medical	NSW
43		오스템	Osstem Australia	NSW
44	철도차량	현대로템	Hyundai Rotem	NSW
45	물류	글로벌비스	Glovis Australia	NSW
46		판토스	Pantos Logistics Australia	NSW
47		팬오션멜버른사무소	PanOcean Co. Ltd, Melbourne	VIC
48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NSW
49	금융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Sydney Branch	NSW
50		신한은행	Shinhan Bank	NSW
51		우리은행	Wooribank Sydney Branch	NSW
52		한국산업은행	The Korea Development Bank	NSW
53	서비스	대한항공	Korean Air	NSW
54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NSW
55		이노션월드와이드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NSW
56		현대홈쇼핑	Australian Shopping Network	NSW
57	방위/방산	한화디펜스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VIC
58	비료	슈퍼퍼트동부	Superfert Donbu	WA
59	헬스케어	종근당바이오	Pacificblue Health	NSW
60		셀트리온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NSW
61		코스맥스엔비티	COSMAXNBT Australia	VIC
62		유한양행	Yuhan ANZ	SA
63	IT	삼성SDS	Samsung SDS Global SCL Australia	NSW
64	뷰티	아모레퍼시픽	Amorepacific Australia	VIC
65	면세점	롯데면세점	Lotte Duty Free Australia	VIC
66	스포츠	질롱코리아	Geelong-Korea	VIC

VII. 멜버른무역관 안내

1. 멜버른 무역관

- 주소 :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 3004
- 전화 : +61-(0)3-9860-0500 / 팩스 : +61-(0)3-9860-0509

2. 개설일자 및 법적지위

개설일자	법적지위	인원(명)		
		본사	현지	계
1973.08.15.	외국정부기관	2	10	12

3. 관할지역 :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 등 3개 주

4. 직원 및 기타 연락처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관 장	최규철 관장	03-9860-0501	무역관 업무 총괄
부 관 장	최재영 과장	03-9860-0502	마케팅/조사/취업, 기획예산
*주호주 멜번분관	전한일 총영사	03-9533-3800	-
	백광석 영사	03-9533-3812	-
	김나경 영사	03-9533-3813	-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